

세계 곳곳서 군부독재와 싸워 민주·인권·평화 수호

상금은 도시빈민문제 해결 사용

국가폭력 방지·제헌의원 활동

반정부 시위 앞장 투옥 되기도

체로 성장했다.

국제적 명성도 더욱 높아져 지난해에는 포스코가 선정하는 '정암 봉사상'을 수상, 1억원의 상금을 받기도했다. 빈민들의 우상으로 불리는 외르다씨는 현재도 자카르타에서 정부의 대책 없는 빈민촌 강제철거를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아시아의 주거권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에도 참여하고 있다.

제9회 수상자인 무니르 아흐메드 말리크(58·파키스탄·변호사)씨는 파키스탄의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신장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지난 1981년 파키스탄 지하울 하크장군의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에 앞장서다가 반정부 활동 혐의로 투옥 군사재판에 회부됐으나 국제사회의 거센 압력에 힘입어 석방됐었다.

그는 "5·18 민중항쟁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표상이며 수많은 시민들의 송고한 희생은 민주화의 자양분이 됐다"며 "광주시민들의 정신과 용기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10회 수상자인 미얀마(버마)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 민꼬나잉(50·본명 파우유튼)씨는 현재 자국 내에서 학생들과 함께 민주·인권운동을 하고 있다. 버마군정이 연료비를 다스리거나 인상하자 다시 반정부 시위의 선봉에 섰다가 2007년 8월 다시 구속돼 지난해 1월 자유의 몸이 된 후부터다.

인도의 군부정부에 의해 구금돼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8회 공동수상자 이람 사미라(여·36)씨는 최근 7년여간의 구금생활을 끝내

고 활동을 재개했다. 인도 정부는 이람씨가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이후 5·18 기념재단 등이 석방운동을 펼치고, 인도에서도 올해의 NGO상 후보에 오르는 등 국내외의 압력에 가해지자, 그를 풀어주었다.

또 2회 수상자인 바실 페르난도씨(64·스리랑카)는 5·18 기념재단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아시아 각국의 국가폭력을 막기 위한 법령제정에 힘쓰고 있으며, 4회 수상자인 단테니아 자안티(여·49)씨는 수상금으로 스리랑카에 고문 후유증 환자를 위한 미술치료센터를 건립했다.

이 밖에도 7회 수상자인 양카나 날라파이스트(여·51)씨는 수상 이후 명성이 높아져 태국 제헌의회 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공동수상자인 말라라이 조야(여·30)씨는 정부에 의해 아프가니스탄 국회의원 신분을 박탈당한 반면, 자신의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부천영화제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영광도 얻었다.

또 13회 수상단체인 아르헨티나의 '망각과 침묵에 대항하여 정체성과 정의의 위해 싸우는 아들딸들'(Hijos e Hijas por la Identidad y la Justicia el contra el Olvido y el Silencio·H.I.J.O.S) 단체는 인권유린 실체 조사 및 진실 규명 등 활발한 인권운동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시기에 실종·처형·투옥되거나 억압을 피해 망명했던 시민들의 자녀들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인권상 수상자들 오월정신의 전도사로

4 해외 수상자들



와르다 하피즈
·6회 수상자
·인도네시아
·도시빈민협 사무총장



말라라이 조야
·7회 수상자
·아프가니스탄
·다큐멘터리 제작



양카나 날라파이스트
·7회 수상자
·태국
·제헌의회 의원



무니르 말리크
·9회 수상자
·파키스탄
·독재정권 반대



민꼬나잉
·10회 수상자
·미얀마
·민주화운동 인물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이 지난 2010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 5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한 뒤 5·18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사진은 광주시 동구 지원동 주남마을 입구에 설치된 시내버스 승강장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5·18 사적14호 주남마을 시내버스 승강장 새단장

노란색 미니버스 모양으로 바뀌

5·18 사적14호인 광주 주남마을 입구에 설치된 시내버스 승강장이 새단장됐다.

주남마을 입구는 1980년 5·18 당시 광주에서 화순으로 가던 미니버스에 탑승한 무고한 시민 18명이 계엄군에 의해 살해 당한 장소로, 수 전 전 5·18 사적 14호로 지정된 곳이다.

2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일 광주시 동구 지원동 주남마을 입구에 설치된 시내버스 승강장을 노란색 미니버스 모양(가로 8.18m·세로 2.79m·너비 2.5m)의 승강장으로 바꾸었다.

기존 시내버스 승강장과 달리 노란색 미니버스 모양의 승강장을 설치한 이유는 5·18 사적지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많은 이용객들에게 5·18의 정신과 의미를 되새겨보자는 취지 때문이다.

민·관 협력으로 탄생된 주남마을 버스승강장은 설계단계부터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 독특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화제를 모았었다.

동구 관계자는 "주남마을 버스 승강장은 5·18 사적지를 대표하는 유일한 기념적이면서 버스 이용객들의 휴식까지를 고려한 실용성 있는 승강장"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